

영길현, 현대화 대농업 발전으로 향촌 진흥 다그쳐



장춘, 길림 통합화 핵심 거점이자 길림성 차원의 농업현대화 선도현인 영길현은 올해초부터 현대화 대농업 전략을 견실히 추진하며 농업강현 건설을 목표로 산업, 생산, 경영 3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융합을 심화함으로써 농촌 현대화 발전을 다그치고 있다.

전역 특색산업군체 구축

302, 202, 206 3대 주요 도로를 축

으로 가능성 베풀며, 들깨 산업 벨트, 인삼, 포도, 누에 산업 벨트, 개암, 룡풍과수 산업 벨트를 조성해 총규모 18.2만무를 달성했으며 원예 특산물 생산액은 년평균 10% 성장했다.

“만무 과수원, 개암원, 모목단지, 천무 약초단지” 등 대규모 기반시설과 무도과일, 채소공장을 건설했으며 전국 최대 들깨 생산, 가공, 수출 기지로 부상했다.

현재 영길 들깨는 한국 시장 점유율 70%, ‘영길 누에’ 종자 공급량은 전

국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만창임쌀’ 브랜드 가치는 66.7억원으로 평가받았으며 3종 농산물이 ‘중국 명품’에 선정됐다.

산업사슬 통합 신산업 육성

박대농림, 우품미업 등 41개 농업 산업과 주요 기업을 육성했으며 관광 농업, 온천웰스, 민속체험 등 산업을 확대해 탁원온천, 수목년화 패밀리카프 등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귀래,

일호산방 등 테마 민박을 도입했다. 2024년 관광객 수입과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와 12% 성장했다.

현대화 시범구 건설, 흑토지 보호 프로젝트 전면 시행으로 고표준 농토 90.5만무(기본 농지의 76.69%)를 완공, 성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리와 벼 공생’, ‘계가 있는 논’ 등 친환경 모델을 확산해 단위당 생산량을 5~10% 향상시켰으며 곡물 생산량은 1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기계 종합작업률, 농업정보화를 100%, 기술진보 기여도 65%를 달성했다.

집약적 규모 경영

현금 지도자, 경영주체 연결 제도를 혁신한 신형 농업경영주체가 년평균 15% 증가했으며 국가급, 성급 모델 가족농장을 다수 배출했다. 핵심구역 토지 규모 경영 비중은 70%에 달하고 농업의 종합 생산효율은 20% 이상 상승했다. ‘역임대’, ‘토지 년금’, ‘주문형 농업’ 등 다양한 모델로 소농과 현대농업을 연계해 농민 소득이 30% 이상 성장했다.

영길현 관계자는 “앞으로 ‘4형 농업(품질·친환경·브랜드·과학기술)’ 건설과 현대화 시범구 ‘5화(기계화·디지털화 등)’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식량 안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농민 소득 증대 경로를 확대해 전역 향촌 진흥에 새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 길림일보

반석시 농기계 운전자들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 제고



반석시농민과학교육센터에서 주최한 농기계 운전자 기술 향상 연구과정이 최근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반석시 13개 향과 가두에서 90명 농업인이 11일간의 집중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리론+실습+연학+교류’의 다원화된 모델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교통법규, 안전 규정 및 지역에 적합한 농기계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듣고 창리기발농기계와 빈주국성농업과 학기술 등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신 농기계 장비와 기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급리기동차운전자양성학교에서 실습이 진행된 가운데 연수생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각종 트랙터와 농업용 드론 등을 직접 조작하

며 실전 능력을 제고했다. 연수 마지막에는 ‘리론+실기’ 이중 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공고히 했다. 참가자들은 “운전이 더 체계적이 되고 안전의식도 높아졌다. 앞으로의 농사일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석시농민과학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해 더 많은 농업인이 ‘기술을 리해하고 경영을 잘하며 관리능력이 있는’ 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촌 진흥과 농업현대화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 길림일보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제 1 회 예술절 성황리에

9월 17일 화창한 가을날,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회원들은 협회 제 1 회 예술절을 맞이했다.

오전 9시, 길림시 화남호텔 6층에 90여명의 협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인민공화국국가 합창으로 행사의 막이 열렸다.

개막사에서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리옥란 회장은 “이번 행사는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무보수 강사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교사절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휘자 리성태의 합창단 경연 참가 일정으로 오늘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협회 강사들의 지도 아래 이룬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회원 자체 제작 예술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협회는 2015년 첫 무보수 강사로 길림시조선족 통소 무형문화재 전승인 김인덕선생을 초청했다. 김선생은 길림시 최초 여성 통소 연주팀을 창단했으며 초보자로부터 시작한 여성협회 회원들이 열정을 안고 실력을 연마한 결과 길림시대극장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서예 분야에서는 길림시조선족중예예술관 부관장 박건국선생이 기초 필법부터 지도했으며 이후 신현산선생이 합류한 덕에 협회 서예반은 국내외 수상 실적까지 쌓았다. 지난해 9월 길림시당위 선전부 등에서 주최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 기념 서화·

종이공예 전시회’에서 협회 조정화 등 회원 8명의 작품이 1, 2 등상을 수상하고 협회는 우수조직상을 받았다.

이번 예술절은 회원들이 각각의 장계를 뽐내는 무대가 되었다.

특히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이자 길림시의 유명 음악지휘자인 리성태의 열정적인 지휘 아래 대합창 〈동북항련가〉와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협회 강습생 대표 6명이 공익강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연출되었다. 강사 대표 리만수는 “학생들이 연령을 극복하고 열심히 재능을 갈고닦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감탄을 표했다.

이러진 공연에서는 회원들이 준비한 16개의 다채로운 종목은 선보였다. 조선족 전통 물동이춤, 리금자와 정춘복의 2인창, 김승혁교사가 지휘한 관현악합주, 특히 90세 고령 회원들의 장교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강습생들의 정성 가득한 서예작품도 무대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길림시부녀연합회, 길림시조선족중예예술관,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길림시조선족연합회 관계자와 행정민족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13 번째 향주오 관광 열차 출발 864 명 관광객, 남북 종단 려정 시작

9월 12일 12시 20분, 향향, 주해, 오문(港澳)으로 향하는 관광 전용열차가 기적소리와 함께 서서히 길림역을 떠났다.

864명의 관광객들은 기대감으로 가득찬 마음을 안고 13일간의 남북 종단 려정에 올랐다. 이번 열차는 2025년 길림역에서 출발한 제 13 번째 관광 전용열차다.

“처음으로 향향, 주해, 오문을 갑니다. 기차역에서 세심한 봉사를 제공해 정말 기대됩니다.” 처음 향향, 주해, 오문으로 관광을 떠나는 장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관광 전용열차는 향향, 오문을 비롯해 광둥, 광서, 하남, 산시, 호남, 강서 등 8개 지역의 핵심 관광지를 깊이있게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현지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 전용열차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길림역은 전문 인력



을 투입해 로선 계획,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 또한 려행사와 협력해 승객들의 집산시간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안전검사 통로, 대기구역, 검표구역을 별도로 마련했다.

길림역당지부 서기 려립주는 “단체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전 과정 봉사를 강화했다.”며 “승강장 입구, 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지점에 안내원을 배치했고 ‘송지정(淞之情)’ 봉사중심에서도 맞춤형문의 및 도움 봉사를 제공해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관광 체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길림일보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40주년 기념대회 성황리에

9월 15일,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 400여명은 명절의 기쁨을 안고 전통 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고서 길림시라지오펠레비존방송활동센터에서 협회 설립 40주년을 경축하는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황성기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쾌한 〈길림시로년협회 화가〉(문창남 작사, 한철근 작곡) 합창으로 막을 열었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박흥기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는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와 시민정국의 올바른 지도 아래 회원들과 함께 로년사업의 다섯가지 방침을 충실히 실천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당원간부와 회원들의 소양을 높였으며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기반을

튼튼히 다진 동시에 건강한 문화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대형 문예공연과 흥색가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와 길림시 조선족중예예술관, 조선족중소학교, 조선족여성협회,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등 정부기관,

학교와 조선족사회 각계 인사 및 길림시 민족, 회족, 몽골족 등 형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길림시회족협회 리춘화 비서장은 축사에서 “조선족은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며 감치 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러진 공연에서는 전통 무용, 장고춤, 녀성 2중창, 전자엑스폰합주, 대합창 등 13개 종목이 선보였고 만족, 회족, 몽골족 연합팀도 3개 종목을 공연해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는 1985년 9월 15일 설립 당시 5개 분회에 회원이 38명이었다. 2001년 시구역과 농촌 협회의 통합으로 26개 분회에 회원 3,000여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설립 20주년 기념 회원 성금 및 기업 후원으로 장만된 34만원으로 로년활동센터를 갖추고 정부 지원금 15만원으로 송화강변에 8개의 표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협회 설립 40주년 기념대회 참석자 일동

화전시 횡도하자향, 수공 당면 산업 발전에 주력



화전시 횡도하자향에 위치한 길림횡도하자향수공당면가공공장은 현지의 량질 감자와 우량 수질 우위에 의거하여 수공 당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장대시킴으로써 촌민들의 소득 증대와 처부를 돕고 있다. 사진은 공장 로동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